

“보시와 전법으로 젊게 삽니다”

조계종 포교사들 전문적인 봉사위해 구성
치매노인 대소변, 목욕 등 굵은일도 척척
불교상담, 침술, 산행포교 활동 등 다양

바라밀현장

은선회 회원들의 노인 봉양

“영감님, 아~ 입 벌리세요, 아~ 조금만 그렇게... 이제 꼭꼭 씹으세요.”

4월 27일 서울 은평구 노인 요양시설인 인덕원 병실. 김태식(68) 거사가 치매 노인들의 점심식사 수발을 들고 있다. 밥을 안 먹겠다고 때를 쓰는 노인을 달래고 흘린 김칫국물을 닦아내며 분주하다.

점심공양이 끝나면 양치질을 할 차례. 늘 농담을 잡혀 여유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는 김 거사의 손길이 갑자기 바빠진다. 양치질을 싫어하는 양 노인 때문이다. “어찌된 건지 아프고 나서는 칫솔질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요. 칫솔을 물고 놓아주지 않아 고생도 많이 했죠.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해야겠네요.”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무척 깔끔했던 양 노인이었기에 김 거사의 안타까움은 더 크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인덕원에는 고마운 손님이 온다. 치매노인 간병 봉사를 위해 찾아오는 은선회(회장 이옥천) 회원이 바로 그들. 자원봉사를 원하는 조계종 포교사들이 2000년 치매 전문요양원인 인덕원 자원봉사를 위해 은선회를 만들었다. 70대를 훌쩍 넘긴 보살부터 40대의 거사까지 모음이 있는 날 하루동안은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는 등 온갖 굵은 일을 하며 보낸다.

수십 년 이상 수행경력의 배태량 불자로 구성된 은선회의 특징은 두 가지. ‘보시와 전법’이다. 불법을 전하는 포교사는 많지

만, 이들은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로 불법을 펴겠다는 것을 평생 서원으로 세웠다.

그래서 회원들은 한 가지 이상 특색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윤차분(58) 포교사는 매주 3일씩 ‘자비의 손’에서 6년째 침술봉사를 하고 있으며 김동민(56) 포교사는 13년째 ‘자비의 전화’에서 불교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 신현(63) 포교사는 30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곧바로 자원봉사에 뛰어들며 섬유유용노조연맹 총무국장인 김종열(55) 포교사는 자비로 등산회를 운영하며 산행포교를 한다. 김민자(61), 장매숙(56), 이월순(47) 보살, 지금남(43) 거사 등도 남을 돕는 것이 취미(?)인 불자들이다.

회원들이 봉사를 하게 된 동기도 다양하다. 86년 아시안 게임 때부터 통역봉사를 했다는 김재약(78) 보살은 “봉사활동을 하면 어떤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기 때문에 젊게 사는 비결이 된다”고 소개했다. 95년부터 소쩍새마을을 도와 온 지금남 거사는 “노인들이 치매로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저것이 미래의 내 모습 같아, 마음 공부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은선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 특히 불교계 미인가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봉사활동의 무대를 넓힐 계획이다. (011)292-6756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디파마 법사 (上)

미국 불교계에 위빠사나 전한 스승

“디파마는 두 손을 합장한 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향해 열두 번 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우리가 마루에서 그를 들어올렸을 때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절하는 자세로 열반한 그의 얼굴은 지극한 고요와 평화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주부들의 수호성자(Patron Saint)’로 불리는 인도의 여성 법사 디파마(Dipa Ma Barua: 1911~1980). 그의 이웃자 제자인 산디프 무추씨는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견처를 얻은 여성 수행자의 보기도 드문 표본이었던 디파마의 일찍이 간은 극적인 생애만큼이나 독특한 열반상을 보인 것이다.

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수행에 깊이 빠져드는 계기가 되었다.

디파마는 전통 위빠사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자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할 수 있는 특별한 수행법을 고안했다. 그는 마음챙김이 말하기, 다림질하기, 요리, 쇼핑, 아기 돌보기 등 어떤 순간 어떤 활동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관찰하세요.”라는 말로 요약된다. 디파마는 일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명상의 힘에 대해 확신에 차 있었기에,



◇여스승 디파마

신에 차 있었기에, 추종자들은 그를 ‘주부들의 수호성자’란 별명을 붙여 주었다.

“스승 디파마의 가르침(Knee Deep In Grace: The Extra Ordinary Life and Teaching of Dipa Ma)의 저자인 에이미 슈미트(Amy Schmidt)는 디파마의 가르침을 통해 ‘부타의 길은 바로 지금 이 삶속에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은선회 이옥천 회장

“몸·기승으로 가르침 전해요”

“설법하는 것만이 포교는 아닐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불자다운 모습, 부처님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들은 머리가 아니라 몸과 기승으로 부처님

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요.”

4년 전 은선회가 발족된 이래 회원들의 연락책을 자임하는 이옥천 회장(65). 그는 회원들이 치매노인들을 위해 4년 동안 빠짐없이 봉사해 온 데는 늘어가는 노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동사섭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완치될 희망이 없는 치매 노인을 위한 봉사는 자칫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기 쉽고, 봉사자들은 금방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 자체가 포교이고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 노인들은 고맙다는 말은 안 하지만 부처님은 알아볼 것”이라는 화장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남은 삶을 조금이라도 편히 살다가 왕생극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어머니, 주부로서 견처 얻은 수행자의 표본

생활속 수행법 고안한 ‘주부들의 수호성자’

그들은 모두 그녀의 인격과 독특한 지도 방식, 제자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에 매혹되었다.

조지프 골드스타인의 말이다. “우리의 일상동안 평범함을 벗어나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디파마가 그런 분이였다. 언제나 자비심이 넘쳐흐르던 그는 가장 요한 평화를 간직한 분이였다. 그의 고요함과 깊은 자비심은 어느 수행자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사만, 잭, 조지프는 디파마의 제자가 되어 인도 캘커타의 작은 아파트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1980년대 초반, 그들은 미국 매사추세츠 바르에 설립된 위빠사나 명상센터에서 두 달간의 수행 훈련을 열어 줄 것을 디파마에게 요청했다. 여기서 수행여명의 미국 수행자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80년대에 디파마가 미국을 두 번 방문했을 때, 저자가 직접 접한 가르침과 일화를 중심으로 엮은 책(Present Perfect Books 펴본)이다.

디파마는 1911년 3월 25일 미얀마와 국경이 맞닿은 동부 벵골의 마을에서 나니 발라 바루아(Nani Bala Barua)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 그녀의 가족은 벵골의 바루아족 혈통으로 인도 원시 불교도들의 후손들이었다.

비록 직접 명상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많은 가족들이 불교 의식과 풍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는 특히 이런 불교의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동네 사원에서 공양물을 올리고 불상을 조성하는 스님을 돕기도 했다.(계속)

김재경 기자

부처님께서 알려주라는 나라를 방문하신지 3년만에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였다. 3년전 부처님께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던 신도들은 세월이 지나자 신심이 흐지부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지만 단 한 사람, 16세 밖에 안된 길쭉한 소녀만이 항상 불법을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다시 방문하자 그곳 신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면서 가르침을 듣고자 모여들었다. 그때 길쭉한 소녀는 일을 끝내고 오느라 늦게 도착하여 땀 위에서 부처님을 뵈게 되었다.

침묵하시던 부처님은 소녀가 도

착하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 소녀를 향해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이에 소녀는 “모릅시다”라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다시 “그럼 너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역시 소녀는 모른다고

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처님께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소녀를 건방지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 이를 보시고 부처님은 사람들

을 알지 못하는냐고 물은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은 것이며, 너는 아느냐고 물은 것은 언제 죽을지 아느냐고 물은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이 말씀 끝에 길쭉하

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소녀에게 때마다 김침들에서 날아온 나무 꼬맹이가 가슴에 꽂혔다. 이로 인해 소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의 아버지는 슬픔에 부처님을 따라가 수행자가 되었다.

부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앞서서 같은 문답을 소녀와 주고 받은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세상을 마칠지 모른다. 우리에게 있어 수행은 이같은 죽음을 필사하며 생각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적연(유마선원장)

알림:이번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마음비추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답했고, 부처님께서 “너는 정말 알지 못하느냐”고 다시 물으셨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녀가 “압니다”라고 대답했고, 부처님은 또 “아느냐”고 물으셨다. 이번에는 소녀가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부

를 향해 “보라, 이 지혜로운 소녀를, 여태가 이 소녀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은 것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것을 묻는 것이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은 것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을 묻는 것이다. 또 너

는 소녀는 모든 외적 사물에 흔들림이 없는 경지인 수다원과를 얻었고 신도들은 다시 큰 믿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며칠 후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딸을 불렀을 때였

불기2547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금강염주를 구입하시면 5월 31일까지 장수호두 약돌 1set를 드립니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약위와잡귀들이보기도힘들고도안맞는영험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약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 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날아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기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 년무야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신 사용 하실분이 꼭 개별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7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3일 후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째날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날은 집안에 금강의 강현력을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입니다. 금강염주는 12간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모티프정전 하시는 스님께서는 청심사를 사용하신다주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 소원명을 알려주시면 무채국 통고로 보내드립니다. 받아 보실때는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로구 관동동 177 대원 B/D40408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한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치료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어들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잠 잘 것 같고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멍습니다. 제 고향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혈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가격은35,000원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정보 장수 호두약돌

황토생명공학 센터에서 황토와, 음이온, 원적외선, 기(기)를 이온 결합시킨 장수 호두약돌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호두는 오랜 옛날부터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절친한 손님이 지압용으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손운동, 지압을 많이 하면 대뇌를 활성화 시켜 머리를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손 예술을 창조한다. 장수호두 약돌은 자연산 호두와 모양이 같으며 常溫(상온)에서 강력한 기를 발산하고 건강 증진과 활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음이온은 초당 2100까지 발산되며 원적외선은 0.93% 발산되며 해독성이 강한 황토가 다량 들어있는 신기한 호두석으로 손에서 놀이삼아 돌리면 손이 따듯해지며 온몸에 생명의기를 체험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분, 항상 피로감을 느끼는분, 수술을 받으신분, 연세가 많으신분 등은 후대가 간편하며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손 운동을 하면 좋다.

가격(소) 33,000원 (대) 38,000
문의전화: (02)3210-3179 *목록이외 팔피도 판매예정임